

톨스토이 대 톨스토이: 톨스토이의 평화사상과 평화실천*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Abstract

Tolstoy versus Tolstoy: Tolstoy's Peace Thought and Practice

Lee, Moonyoung

To many Koreans, Tolstoy is known as a saint or truth-seeker who lectured on love, forgiveness, the moral cultivation of individuals, and spiritual maturity. In the meanwhile, there existed a warrior who fiercely confronted established power and supported anti-statism and anti-nationalism. He rejected all institutionalized violence, including state authority. Moreover, he insisted on absolute nonviolence by denying even individual violence as self-defense. This kind of an absolute pacifism is dangerous, much more disquieting than anything else, and far from secured idealism. Therefore, the familiar view of Tolstoy as a saint should be supplemented with a view of him as a resister who uncompromisingly fought for peace. The starting point would be his pacifism, from which his constant struggle started.

This article will discuss the unknown aspects of Tolstoy, i.e. his life as a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61-A00017).

- DOI: <http://dx.doi.org/10.15755/jfs.2016.35.199>

thinker and practitioner of peace. First, it will analyze how Tolstoy translated moral principles, such as love, fraternity, and nonviolence, into radical social criticism that supported the abolition of the state. Second, it will examine the identity of the “new Christianity” that he conceived for social reform and moral revolution. Then, it will discuss the influence of Tolstoy’s pacifism upon the turbulent world situation and Russia on the eve of revolution.

Keywords: Tolstoy, Peace, Love, Nonviolence, Anti-statism, Anti-patriotism

주제어: 톨스토이, 평화, 사랑, 비폭력, 반국가주의, 반애국주의

I. 톨스토이 대 톨스토이: 성자와 전사

톨스토이와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노벨상으로부터 시작해보고자 한다. 사람들은 노벨평화상을 당연히 받았거나, 마땅히 받았어야 했을 인물로 흔히 인도의 간디와 러시아의 톨스토이를 첫 손에 꼽는다. 간디는 4년에 걸쳐 5번이나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지만 끝내 상을 받지 못했다. 그의 경우는 수상이 거의 확실시되던 1948년, 그가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노벨평화상에는 4번, 노벨문학상에는 무려 16번이나 후보에 올랐지만, 결국 두 상 중 어느 것도 받지 못했다. 그의 수상 불발을 두고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항의와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급기야 톨스토이가 ‘저는 괜찮습니다, 노벨상을 받지 못해서 오히려 다행입니다...’라는 요지의 공개서한까지 썼어야 했는데도 말이다(Джалагония, 2007).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부활』 등 세계문학사에 길이 남을 걸작을 쓴 천재작가이자, 농민 계몽, 빈민 구제, 사형제 폐지나 반전 활동 등을 통해 인류애를 몸소 실천한 평화의 사도 톨스토이는 왜 노벨문학상도, 노벨평화상도 받지 못했을까. 몇 년 전 똑같은 질문에 노벨재단 총재인 미카엘 솔만(M. Sohlman)은 100년 전 노벨위원회는 무척 보수적이었다고 대답했다(Викторов, 2006).¹⁾ 당시 노벨상을 결정하는 노벨위원회의 기준은 ‘고결하고 건전한 이상주의의 구현’이었다고 알려진다. 그렇다면 작가로서나 평화사상가

로서 톨스토이가 보수적인 틀이 감당 못할, 또는 건전한 상식의 궤를 벗어나는 면모를 지녔다는 뜻일까. 1905년 노벨위원회의 수상자 최종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톨스토이의 많은 작품에 매혹을 금할 수 없지만, 이 작가의 이상주의가 얼마나 건전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그의 많은 작품에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마저 거부되고, 대중과 개인의 자기방어의 권리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모순되게도 그 스스로도 누리고 있는 사적 소유의 권리까지 논박된다.”(Стрельцов, 2011)

공식 교회를 부정하고, 국가라는 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근간이라 할 사적 소유에 도전한 톨스토이. 만일 사실이 이러하다면 노벨상이 톨스토이를 끝내 포용하지 못한 것도 수긍이 간다. 당시 서유럽은 평화 보장의 기본 단위로 국민국가를 상정하고, 평화의 국제법적 기초를 국가간 관계 속에 마련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었다. 노벨상은 당대 이러한 국제평화의 기조에 적극 호응할 뿐 아니라, 이를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톨스토이의 가차 없는 국가 부정, 그 토대인 사유(私有)의 부정 등은 지나치게 과격하고 급진적인 것, 다시 말해 ‘건전한 이상주의’의 틀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교회와 싸우고, 국가와 싸우고, 소유 제도와 싸우는 과격하고 전투적인 톨스토이의 모습은 사실 우리 한국인에게도 그리 익숙지 않다. 한국과 러시아가 공식 수교를 맺은 지 사반세기가 지났다. 1884년 조러통상조약부터 따지면 백년과 사반세기를 훌쩍 넘어선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한국에 여전히 낯설고 먼 나라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예외다. 한국 근대문학의 출발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톨스토이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기호로, 나아가 문학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 안 읽어도 읽은 듯한 친숙함으로, 안 읽으면 읽어야 할 당위로 톨스토이는 우리 일상과 함께 했다. 서재를 빼곡 채운 세계문학전집이나 국가선정추천도서 목록 속에서 그의 이름은 여전히 묵직한 존재감을 과시한다.

그렇다면 톨스토이에 대해 한국인은 어떤 인상을 갖고 있을까? 물론 무엇보다 톨스토이는 오드리 헵번의 『전쟁과 평화』, 소피 마르소의 『안나 카레

니나』, 그리고 ‘검은 눈의 카추샤’가 등장하는 『부활』의 작가다. 그런데 작가가 톨스토이의 모습에는 인생의 스승,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현자(賢者)의 이미지가 어김없이 덧 씌어져 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봤음직한 사진이나 초상 속의 그는 한결같이 흰 수염을 덩수룩하게 기르고 소박한 러시아 농민복을 입은 모습이다. 그 할아버지 톨스토이에게서 우리는 성자나 구도자를 발견한다. 특히 2003년 MBC 교양프로그램 <느낌표>에서 『톨스토이 단편선』이 고전베스트로 뽑힌 이후로 “바보 이반 이야기”,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같이 톨스토이가 농민이나 어린이 교육을 위해 지은 교훈적 우화나 잠언집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이런 인상이 더욱 강해졌다.

심지어 21세기 대한민국 출판계에서 톨스토이는 힐링과 처세 양쪽으로 적극 소비되는 중이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마음을 치유하는 한줄 명상-톨스토이와 함께 보내는 365』, 『톨스토이, 당신에게 인생을 묻습니다』, 『톨스토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행복한 삶을 위한 다섯 가지 질문』, 『365일 에센스 톨스토이 잠언집』, 『내가 처음 만난 톨스토이-길을 찾는 어린이에게』, 『엄마와 아기의 마음을 이어주는 톨스토이 태교동화』 등등, 정말 다종다양한 목적에 종사하는 톨스토이를 발견할 수 있다. 향기로운 아포리즘이 그의 3대 소설은 물론, 본격적인 국가론, 인생론, 종교론, 예술론 등을 제치고 톨스토이의 본령이 되어가는 중이다.

인생의 스승, 지혜로운 현자 톨스토이의 이미지는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평화주의자 톨스토이로부터 비롯한다. ‘악에 대항하지 말라’던 그의 비폭력주의, 바보 이반이 보여주는 바보 같은 사랑, 물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을 들어내고 진정한 믿음으로 영혼의 공간을 채우라는 그의 설교가 무한경쟁에 내몰려 그 어느 때보다 각박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위안이 되는 모양이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그러한 비폭력이,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믿음이, 그리하여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했을까. 톨스토이는 이 모든 것이 ‘악에 대한 투쟁’ 속에 가능하다고 했다. 그가 직접 밝힌 바 있듯이, 흔히 알려진 그의 무저항주의는 악에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의미에서의 무저항인 것이지, 결코 악에 대한 투쟁을 포기하라는 수동적인 무저항이 아니었다(Толстой, 1934, p. 259). 그리고 이 때의 악은 종교적이나 철학적인 차원

의 선악 개념처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혁명을 목전에 둔 차르 통치 하 제정 러시아’라는 구체적인 사회 조건 속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악이었다. 톨스토이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폭력을 제도화하는 국가, 인간에 의한 인간의 노동 착취를 합법화하는 경제 질서, 그리고 그러한 폭력을 신의 법칙으로 정당화하는 기성 종교 등을 만악의 근원으로 여겼다. 이에 따라 그는 차르 정부, 군대, 경찰, 사법기관, 농노제나 자본주의 소유 구조,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와 평생에 걸쳐 간단없이 가열차게 싸웠다. 악의 실행자들에 대한 톨스토이의 증오, 그들의 기만과 위선을 폭로하는 그의 언어는 너무나 강렬하고 신랄해서, 이 사람이 과연 ‘화내지 말라’, ‘원수를 내 몸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그 누구보다 충실히 따르고자 했던 그 톨스토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또 그는 차르 전제정부를 넘어 모든 국가 권력을 부정했을 뿐 아니라,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전쟁이라는 최고의 악을 초래하는 또 다른 악의 근원으로 매섭게 질타했다.

우리 한국인에 익숙한 톨스토이, 즉 사랑과 용서,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영적 성숙을 설교하는 성자(聖者) 톨스토이의 후광 뒤에는 이렇게 탈국가, 탈민족을 외치던 근대의 이단아, 적그리스도라 불릴 정도로 파격적인 신앙을 설교하며 기성 권력과 맹렬히 싸운 전사(戰士) 톨스토이가 서 있다. 따라서 앞서 노벨위원회가 묘사한 바의 톨스토이는 충분히 사실에 부합한다, 톨스토이의 유토피아는 국가로 대표되는 모든 제도화된 폭력의 거부 위에, 나아가 그러한 구조적 폭력은 물론, 정당방위로서의 개별적 폭력조차 허용하지 않는 견결한 비폭력주의에 기반한다. 이러한 절대적 평화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무엇보다 전투적이고 따라서 불온한 평화주의로, 안전한 이상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자 톨스토이는, 평화를 위해 말 그대로 ‘비타협적’으로 싸웠던 톨스토이, 그 결과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파문당하고, 비밀요원에게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혹독한 검열로 특히 생애 후반기 자기 땅에서 어느 책 하나 온전히 출판할 수 없었던 저항자 톨스토이에 대한 이야기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의 출발점은 톨스토이의 지난한 투쟁이 발원하는 지점, 바로 그의 평화사상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톨스토이, 즉 평화사상가이자 실천가 톨스토이를 다룬다. 본문을 통해 사랑과 형제애, 비폭력 같은 추상적 원칙이 어떻게 톨스토이를 통해 국가 철폐를 호소하는 반사회적 제도 비

판론으로 변모하는지, 사회 개조를 향한 도덕 혁명을 위해 그가 창안한 진실로 ‘새로운 기독교’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혁명을 목전에 둔 당대 러시아 사회 및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만나 톨스토이의 이러한 평화주의가 어떤 사건으로 발화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II. 평화사상가 톨스토이: 새로운 기독교 사상

사실 톨스토이 속에는 여러 차원에 걸쳐 많은 ‘두 톨스토이’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당연히 작가 톨스토이와 평화사상가 톨스토이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평화사상가 톨스토이 속에는 성자 톨스토이와 전사 톨스토이가 존재한다. 한편 작가 톨스토이 속에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를 쓴 톨스토이와, 자신의 두 걸작을 포함해 선에 봉사하지 않는 모든 예술을 ‘쓰레기’라 경멸한 『부활』의 작가 톨스토이가 있다. 또 카프카즈 전투, 크림 전쟁에 직접 참여하며 조국 러시아를 위해 몸 바쳤던 톨스토이와, 러일전쟁 당시 조국을 휩쓴 애국적 열기를 질타한 톨스토이가 있다. 민중의 자연적 본성을 믿었던 톨스토이와, 신앙조차 이성의 지배 아래 두고자 했던 톨스토이가 있다. 술과 담배, 고기를 멀리하며 금욕과 절제에 헌신했던 톨스토이와, 60세에 13번째 아들을 얻은 톨스토이가 있다... 이 두 톨스토이들이 분화하며 도열하는 지점이 바로 톨스토이의 저 유명한 『참회록(Исповедь)』(1879~1880)을 낳은 정신적 위기의 시기다. 평생 두 톨스토이 간의 힘겨루기가 끊인 적이 없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이 정신적 위기를 기점으로 평화사상가, 종교철학자, 설교자 톨스토이가 작가 톨스토이, 인간 톨스토이를 압도하게 된다.

톨스토이가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은 때는 그가 50세를 바라볼 즈음인 1870년대 말로, 『안나 카레니나』의 마무리 작업에 매진하고 있을 때였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미 20대에 자전소설 3부작, ‘세바스토폴 시리즈’로 이름을 얻은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로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명성을 얻었다. 그가 34살에 결혼한 16살 연하의 아내 소피야는 2천 여 페이지에 달하는 『전쟁과 평화』를 7번이나 필사하는 등, 톨스토이의 대체 불가능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유서 깊은 귀족 집안 출신이었던 ‘백작’ 톨스토이는 이미 10대부터 ‘야스나야 폴랴나(Ясная пол

яна)’라는 거대한 영지의 지주였다. 영지로부터의 수입과 작품 인세로 톨스토이는 경제적으로도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의 절정에 있던 톨스토이에게 어떤 어렴풋한 의문으로 인하여 삶이 멈춘 듯한 공허와 우울의 순간이 찾아온다. 처음엔 아주 이따금 스쳐 지나가듯 찾아오던 그 질문들이 점점 자주 지속적으로 그를 사로잡아, 톨스토이가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할 지경에 이른다. 그럼 과연 그를 사로잡은 의문이란 대체 무엇일까.

“이 의문을 달리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만 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원해야만 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인가를 해야만 하는가?’ 또는 이 의문을 다음과 같이 달리 표현할 수도 있다. ‘나에게 닥쳐올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의해서도 소멸되지 않을 가치가 내 삶 속에 들어 있을까?’”(톨스토이, 2012, p. 37)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던 쉬흔 살 무렵의 톨스토이를 무장해제시킨 질문은 바로 ‘왜 사는가’였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톨스토이를 공포스럽게 했던 죽음에 대한 문제와 떨어질 수 없었다. 이 무렵 톨스토이는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연이어 경험한다. 1873년부터 1875년까지 불과 3년 사이에 무려 5명이 죽었다. 톨스토이의 어린 세 자식 표트르, 니콜라이, 바르바라가 병으로 죽었다. 2살 때 어머니를, 9살 때 아버지를 잃은 톨스토이를 50여년 가까이 부모처럼 돌봐준 예르골스카야(Т. Ергольская) 아주머니, 큰 고모 유쉬코바(П. Юшкова)가 연달아 세상을 등졌다. 그는 삶에 대해, 죽음에 대해 답을 얻어야만 했다.

나는 누구이고, 왜 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톨스토이는 고군분투했다. 처음에 그는 자신에게 익숙한 학문, 즉 철학, 과학 등의 이성적 지식에서 답을 얻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솔로몬, 소크라테스로부터 쇼펜하우어에 이르기까지 학자와 현자들은 ‘나와 세계는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 ‘모든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답했고,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그저 ‘모른다’고 할 뿐이었다. 그런데 문득 톨스토이는 유식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성이나 지식 없이도, 왜 사는가 질문 한 번 던지지 않고도 의미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비

밀은 ‘신앙’에 있었다(톨스토이, 2012, p. 37).

태어나자마자 러시아 정교회의 기독교 신자로 세례를 받고 교육을 받은 톨스토이는 18살 이후로 신을 믿지 않았다. 그런 그가 인생의 최대 위기에 이르러 다시 신앙 속에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 그런데 그가 다시 찾은 신앙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신비로운 계시나, 초월적 신에 대한 선험적 관계가 아닌,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힘, 즉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지식’에 다름 아니었다(톨스토이, 2012, pp. 79~80). 톨스토이에게 모든 신앙의 본질은 죽음에 의해서도 파괴되지 않는 의미를 삶에 부여하는 데 있었고, 이 의미는 무엇보다 ‘선한 삶’ 그 자체에서 비롯하는 것이었다. 농부들의 건강하고 정직한 노동, 소박하고 절제된 삶, 겸손함과 참을성,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과 사랑. 톨스토이는 이런 ‘선’한 삶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음을 ‘믿게’ 되고, 이런 선한 삶이 신의 뜻에 다름 아니며, 그 속에 신의 진리가 놓여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바로 여기서 톨스토이에 특징적인 종교철학이 시작된다. 톨스토이에게는 종교로부터 갖가지 도덕률이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덕으로부터 종교가 비롯된다. 톨스토이의 종교는 신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철저히 사람을 위한 종교이며, 내세의 구원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현세의 삶을 위한 지침이었다(Кожурин, Кучина, 2010, p. 55). 따라서 선한 삶을 진리로 입증하는 신이라면, 그 신이 예수든, 붓다든, 마호메트든, 톨스토이에게는 다르지 않았다. 이제 톨스토이는 대체할 수 없는 삶의 의미이자 신앙이 된 ‘도덕적 자기완성’의 거울에 자신의 지난 삶을 비추며 참회한다. 그의 참회록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나는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였으며, 죽이기 위해 결투를 신청하곤 했고, 카드 도박에 져서 돈을 잃기도 했다. 또한 나는 농부들의 노동의 열매를 먹어 치우고, 그들을 괴롭히고, 음탕한 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곤 했다. 거짓, 도둑질, 온갖 종류의 간통, 폭음, 폭행, 살인...내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는 없었다.”(톨스토이, 2012, p. 11)

이 무렵, 정확히는 1878년 톨스토이는 13년간 쓰지 않았던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한다. 이제 그의 일기는 자기반성과 선한 삶을 위한 각종 계획들로

채워진다. 『참회록』이 발표되던 해 그는 사냥을 끊었고, 이후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채식을 시작했으며, 자신이 가진 모두를 이웃과 나누려 했다. 그의 말년이 부인과의 끊임없는 불화로 그토록 불행했던 것이나, 그래서 1884년부터 13년에 한 번씩 가출을 시도하고, 그러다 결국 82세의 나이에 집을 뛰쳐나가 객사하게 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막대한 인세가 나오던 모든 저작권을 포기하고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던 톨스토이의 뜻을 아내 소피야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참회와 더불어 톨스토이는 사회에 참회를 요구한다. 무엇보다 먼저 그의 비판이 향한 것은 당시 러시아 정교회의 공식 교회였다. 톨스토이는 민중의 신앙과 달리, 공식 교회가 요구하는 신앙 속에 어떤 허위가 존재함을 어렴풋이 느낀다. 그리고 그 허위 속에 어떤 ‘폭력’이 존재함을 예민하게 감지한다. 그 폭력은 첫 번째로, 정교회가 자신과 신앙이 다른 모든 신자들을 이단으로 간주하고, 자신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여기는 자만과 배척, 경멸에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전쟁과 사형을 정당화함으로써, 모든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 어긋나는 살인을 허용하는 교리에 있었다(톨스토이, 2012, pp. 120~121, 125).

『참회록』에서 발아한 공식 교회에 대한 비판은 이후 『나는 무엇을 믿는가(В чем моя вера?)』(1882-1884, 보통 『나의 신앙』으로 알려져 있다), 『교리신학연구(Исследование догматического богословия)』(1891), 『종교란 무엇이며, 그 본질은 무엇인가(Что такое религия и в чем ее сущность?)』(1901-1902)와 같은 저작을 통해 본격화된다. 이 저서들 모두 톨스토이의 신랄한 정교회 비판으로 검열에 걸려 러시아에서 제대로 출판되지 못했다. 그 결과 『참회록』, 『나의 신앙』, 『교리신학연구』 모두 러시아가 아닌 스위스 제네바에서 각각 1884년, 1888년, 1891년 최초로 출판된다. 하지만 톨스토이의 이 ‘불온문서’들은 석판 인쇄된 가철본 상태의 비합법 출판물로 러시아 전역에 퍼져나갔다. 이 종교 관련 저작들을 통해 톨스토이는 정녕 야심차게도 ‘새로운 종교’를 창설하고자 한다.

사실 ‘새로운 종교’에 대한 생각은 젊은 시절의 톨스토이에게서 이미 발견할 수 있다. 1855년 3월 4일 일기장에 그는 ‘새로운 종교 창설(основание новой религии)’이라는 자신의 거대한 착상에 대해 적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류의 발전에 부합할 이 새로운 기독교는 기적과 신비가 제거된 ‘실질적인

종교'로, 내세의 행복이 아닌 이 땅에서의 행복을 약속하며, 이성이 그것을 완성할 것이라 한다(Толстой, 1937, p. 37). 실제로 30여 년이 흘러 노년의 톨스토이가 건설하고자 한 새로운 신의 왕국의 핵심이 바로 그와 같다. 그의 이론적 저술 중 가장 탁월한 것 중 하나라 평가되는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의 부제가 “신비적 교리가 아닌, 새로운 삶의 이해로서의 기독교(Христианство не как мистическое учение, а как новое жизнепонимание)”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톨스토이에게 종교는 ‘마음의 본원에 대한 인간의 관계와,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사명과, 그 사명으로부터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제규칙’에 다름 아니다(톨스토이, 1974, p. 344). 따라서 그것은 모두에게 쉽게 이해되고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의 이성과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그런데 타락한 교회는 알쏭달쏭한 기적으로 이 당연한 진리를 가리고, 그 신비의 유일한 해석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특권화한다. 톨스토이는 일체의 신비와 기적, 불합리한 믿음이 제거된 지극히 이성적인 종교로서 초기 기독교를 회복할 것을 요구한다(톨스토이, 1974, p. 318~327). 이 초기 기독교 정신은 4대복음서,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의 산상설교(마태복음 5-7장)에 집약되어 있다. 톨스토이의 거의 모든 종교적 저술의 핵심은 공식교회와의 선명한 대비 속에 산상설교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톨스토이는 산상설교의 핵심을 “화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에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 적을 내 몸처럼 아끼라”로 요약하고, 구약의 십계명을 이 오계명으로 대체한다. 이 다섯 가지 계율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법칙’으로, 이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기독교의 황금률(마태복음 7장 12절)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톨스토이는 브라만교, 유대교, 카톨릭, 개신교, 이슬람교, 유교, 도교, 불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참된 종교는 외적 형식은 다양할지라도, 그 근본원리에 있어서는 모두 같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그가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선택한 이유는 오직 예수만이 사랑을 ‘최고’의 법칙으로 강조했기 때문이다. 다른 대종교도, 또 톨스토이가 보기에 부처의 설법이나 도교의 교리도 이웃 사랑을 미덕의 하나로 보긴 했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사랑을 ‘우리 행동의 유일한 동기이자,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최고의 율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톨스토이, 2004, pp. 52~58; 1974, pp. 342~345). 톨스토이는 사랑을 가

장 이성적인 종교적 행위로 여겼다. 그에게 이성과 사랑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는 의식적 노력은 인간의 이성이 명령하는 최고의 행위인 것이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앞장서 알려주는 예수는 톨스토이에게 무엇보다 ‘인간’ 예수였다. 그는 예수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경이라 말한다. 뿐만 아니라 톨스토이는 예수의 신성(神性)은 물론, 그의 부활, 그를 통한 대속, 미래의 재림 역시 믿지 않았고, 그 외 창조설, 성 삼위일체, 동정녀 수태, 아담과 이브의 원죄, 천국과 지옥 같은 사후세계 등을 모두 부정했다. 또 그는 기독교 예식의 본질이라 할 성찬식과 고해성사를 포함해, 유아세례, 성유식(聖油式), 성상이나 성물 경배, 각종 기도 형식이나 서원 등 교회의 주요 의식을 민중을 기만하는 ‘최면술’이라고 통렬하게 비난했다.

“내가 요령부득의 삼위일체나, 지금 시대에 아무 의미도 없는, 최초의 인간의 타락에 대한 우화나, 처녀에게서 태어나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거부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맞는 얘기다...나는 신의 의지가 인간 예수의 가르침에 가장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믿으며, 예수를 신으로 여겨 그에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경이라 생각한다.” (Толстой, 1952b, p. 248, 251~252).

톨스토이가 부정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기독교 교리와 예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특히 예수의 신인성(神人性)이나 부활, 그를 통한 구원과 영생을 믿지 않는 기독교를 기독교라 할 수 있을지는 지금의 관점에서조차 매우 의심스럽다. 모든 걸 걷어내고 그가 받아들인 건 오직 예수의 가르침 하나뿐이었다. 철저히 이성화된 톨스토이의 기독교는 계몽시대 합리주의자들에 의해 발전한 ‘자연종교(natural religion)’ 개념, 즉 인간의 이성적 통찰에 기반해 계몽의 목적에 종교를 종속시켰던 로크의 이신론(理神論)이나, 루소, 볼테르 등의 종교철학의 러시아적 변체라 할 만하다(Кожурин, Кучина, 2010, p. 55). 당시 교회는 이 자연종교를 이단으로 배척했다. 실제로 러시아의 저명 종교철학자 메레쥬콥스키(Д. Мережковский, 2000)는 톨스토이의 종교를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참칭한 이교(異敎)”라 한 바 있는데, 톨스토이가 주장한 ‘새로운 기독교’는 내용 상 이단으로 불리기에 충분했다. 마침내 1901년

2월 24일 러시아 정교회 최고종교회의는 ‘사이비교주(лжеучитель)’ 톨스토이의 과문을 공식 발표한다.

“...새로이 거짓설교자 톨스토이 백작이 나타났다. 세계가 다 아는 작가이자, 러시아에서 태어나 정교신자로 세례와 교육을 받은 톨스토이 백작은 자신의 오만한 이성에 유혹되어 대담하게도 신과 그의 아들 예수, 그 신성에 거역하고, 자신을 먹이고 키워준 어머니 정교회를 모두 앞에서 명백하게 버렸으며... 신이 주신 재능을 예수와 교회에 대적하는 가르침을 민중에 퍼트리고...조국의 신앙, 정교회의 신앙을 파괴하는데 다 바쳤다...광신자의 질투심으로 그는 정교회의 모든 교리를 전복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 자체를 전복할 것을 설교하고 있다...따라서 그가 회개하고, 교회와의 교제를 회복하지 않는 한, 교회는 그를 자신의 일원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간주할 수 없다.”(Синод, 1901, p. 1)

톨스토이는 자신이 정교회라 불리는 교회를 버렸음을 기꺼이 인정했다. 그러나 “신을 거역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영혼의 온 힘을 다해 그를 섬기기 위해 버렸다”고 항변한다(Толстой, 1952, p. 247). 정신적 위기의 시기, 교회에 의심을 가지게 된 톨스토이는 이후 교회의 가르침을 이론적, 실제적으로 연구하는데 몇 년을 바쳤다. 그는 성경, 교회의 각종 교리들, 이론서들을 모조리 다시 읽고 철저히 분석한다. 또 모든 재계를 염수하고, 모든 예배와 예식에 참여하며, 교회가 명하는 규율과 지침을 엄격히 따랐다. 그 결과 톨스토이가 얻은 결론은 “교회의 가르침은 이론적으로는 교활하고 해로운 거짓이며, 실천적으로는 기독교 가르침의 모든 의미를 완전히 가리는 가장 찬한 미신과 속임수의 조합”이라는 것이다(Толстой, 1952b, p. 247). 톨스토이는 정말 신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신비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적 기만을 폭로할 의무이며, 이를 폭로하는 자신을 불경하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중상모략이며, 만일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 자기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모든 사기와 협잡을 목도한다면, 마땅히 큰 분노로 모든 것을 내던져버리리라 말한다(Толстой, 1952b, p. 251).

그런데 톨스토이가 ‘이단 중의 이단’이자 ‘러시아 사회를 파괴할 극도로 불온한 인물’로 파문당한 진짜 이유는 예수의 신성과 부활, 내세 등을 믿지 않고, 성찬이나 고해 등을 거부한 때문만은 아니다. 톨스토이가 교리나 형식상의 파격을 요구했던 이유는 단 하나, 그런 단순화와 절제를 통해서만 누구

나 이해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예수의 가르침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럼 이렇게 쉽고 간명한 예수의 가르침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톨스토이는 국가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국가를 교회가 정당화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렇게 톨스토이의 반교회론은 반국가론, 반체제론과 연결된다.

“세상 사람들은 어째서 이렇게도 자연스럽게 필요불가결하고 동시에 실행이 가능한 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일까?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폭력, 무기, 감옥, 교수대 등에 의해서 자기들의 생활을 구성하고 강화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런 생활 조직을 정상적이라고 볼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유일한 것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 바로 여기에 그 주요 원인이 있는 것이다...법률을 빙자해 행해지는 폭력과 범죄의 습관이 점점 빈번해지고, 종교와 더불어 제창되는 허위종교의 최면술이 많아질수록...참된 종교를 인생의 기초로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어지고 마는 것이다.”(톨스토이, 1974, pp. 345 ~346)

교리와 형식의 파격은 종교의 역할이나 사명의 혁신, 그리고 사회 개조를 향한 도덕적 혁명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그의 기성종교 비판과 참된 종교의 주장은 따라서 반국가, 반체제 사상과 분리불가능하게 결합되어 있다. 톨스토이의 파문이 종교적 스캔들이 아닌 정치적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최고종교회의 의장 포베도노스체프(К. Победоносцев)가 정작 톨스토이의 파문을 마지막까지 망설였던 이유도 그것이 대중에게 교회가 아닌 정부의 조치로 받아들여질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Фирсов, 2001). 한편 톨스토이를 극도로 증오했던 유명 사제 크론슈타츠키(И. Кронштадский)는 ‘신이시여...러시아에 평화를 주시고, 반역과 혁명을 멈추시고, 가장 사악하고 참회할 줄 모르는 불경한 레프 톨스토이와 그의 모든 광적인 추종자들을 땅에서 거두어가소서’라는 기도문을 모스크바의 한 신문에 실기까지 했다(Можегов, 2010). 파문은 반역자 톨스토이, 저항자 톨스토이를 대중의 뇌리에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각인시키는 사건이 된다.

Ⅲ. 평화실천가 톨스토이: 도덕적 혁명과 반국가·탈애국

톨스토이의 국가론, 정확히는 반국가론 또는 탈국가론이라 할 그것은 <참회록> 이후 그가 다양한 사회정치적 테마와 관련해 정력적으로 써내려간 수많은 논문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Царство божие внутри вас)』(1893, 이하 『하느님 나라』), 『폭력의 법칙과 사랑의 법칙(Закон насилия и закон любви)』(1908), 『국가라는 미신(Суеверие государства)』(1910), 그리고 그가 1900년에 쓴 일련의 논문들, 즉 “우리 시대의 노예제(Рабство нашего времени)”, “애국심과 정부(Патриотизм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살인하지 말라(Не убий)” 등에 잘 드러나 있다.

톨스토이는 왜 국가를 거부하는가? 진실한 기독교인이 실천해야 할 ‘사랑의 법칙’의 실현을 국가가 기반한 ‘폭력의 법칙’이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면, 폭력은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 남을 강제하는 것이다. 국가는 통치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제도, 조세제도, 병역제도 모두에 있어 폭력과 강요에 기반한다. 형제가 형제를 체포하고 심판하고 감금하고 목숨을 빼앗는 것, 한줌밖에 안 되는 부자가 가난한 백성 전체를 갈취하고 착취하는 것, 형제를 또 다른 형제를 죽이라고 혼란시켜 사지로 내모는 것. 이 모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를 내 몸처럼 아끼라는 그리스도의 계율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톨스토이, 2004, pp. 33~39, 59~69, 121~127).

톨스토이는 『하느님 나라』에서 국가라는 폭력의 사슬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로 ‘위협-매수-취면-군대와 경찰’을 꼽는다. ‘위협(устрашение)’은 기존의 통치 체제를 신성하고 불변하는 것으로 강요하고, 그 변경을 시도하는 자에게 가차 없이 처벌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매수(подкуп)’는 노동하는 대중에게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빼앗은 재물을 관리나 공직자에게 나누어주어 그들이 국가의 폭력 구조를 유지하는데 봉사하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이 매수의 대상에는 성직자, 학자, 예술가 등도 고루 포함된다. ‘취면(гипнозизация)’은 다수의 대중에게 ‘애국심이라는 터무니없는 미신’과 ‘정부에 대한 복종이라는 가공의 의무’를 주입해 자신의 노예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게 세뇌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요소인 ‘군대와 경찰’은 앞서의 세 가지를 지원하고 완

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폭력 도구로, 이를 위해 국가는 특정한 수의 사람들을 뽑아 특히 강력한 정신적 마비와 야수화를 진행시킨다(톨스토이, 2008, pp. 21~26).³⁾

톨스토이는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 순순히 따르는 국가의 모든 사항이 이처럼 물리적 폭력과 위협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았다. 톨스토이가 거부한 국가는 당대 러시아의 차르 체제만이 아니었다. 그는 독재나 전제 등 억압적인 정치 체제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틀 자체를 부정한다. 이처럼 가장 원칙적이고 근원적인 차원의 국가 부정이 가능한 것은 톨스토이가 국가의 폭력의 근원을 무엇보다 ‘법’에서 발견하기 때문이다.

“노예제의 본질은...입법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있다...법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게 문제다. 입법권은 무엇인가? 무엇이 사람들에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가?...입법은 국민 전체의 의사 표현 행위라고들 한다...하지만 그 어떤 법도 전체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지는 못한다...따라서 법에 관해 만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정의는 이렇게 될 것이다.”법은 조직화된 폭력으로 통치하는 사람들이 만든 규칙이다...”(톨스토이, 2008, pp. 151~154)

국가에 대한 톨스토이의 통찰에서 우리는 폭력에 대한 현대적 이론들의 어떤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위협-매수-최면-공권력으로 구성되는 ‘폭력의 사슬’에 대한 톨스토이의 논의는 현대 평화학의 아버지 갈통의 ‘폭력의 삼각형’, 즉 직접적 폭력-구조적 폭력-문화적 폭력이 이루는 연쇄를 떠올리게 한다. 갈통으로부터 시작된 비판적 평화학의 의미는 국가가 가장 근본적인 폭력의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전통적 평화학의 국가중심주의적 패러다임을 넘어섰다는 데 있다. 또 ‘조직화된 폭력의 기반으로서의 법’에 대한 톨스토이의 의구심은 법과 폭력이 발생에서부터 작동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논파한 벤야민의 ‘법 정립적 폭력’과 ‘법 보존적 폭력’ 개념을 연상시킨다. 폭력에 대한 철학적 성찰의 원류라 일컬어지는 벤야민 이론의 핵심은 여타의 폭력과 자신을 구별지우는 국가독점폭력의 합법성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정의(正義)와 합법성에 대한 그 주장 자체가 얼마나 근본적인 폭력인지에 있다(이문영, 2015, pp. 31, 41~42). 이는 톨스토이의 ‘도

대체 누가, 무엇이 그들에게 법을 만들 권리를 부여하는가'라는 의문과 맞닿아 있다. 어쩌면 이제부터 우리는 폭력에 대한 현대 이론의 원류를 벤야민보다 30여 년 쯤 더 앞선 지점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벤야민이 법과 폭력의 타락한 결탁을 끊어낼 '혁명'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저버리지 못한 것과 달리, 톨스토이는 혁명이 현재의 폭력을 대체할 대안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폭력에 의한 폭력의 대체일 뿐이고, 폭력에 기반한 권력에의 의지는 더 큰 폭력을 낳기 때문이다. 그는 혁명에 의한 새로운 권력은 이전의 권력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전체적일 수밖에 없으며, 모든 혁명의 역사가 이를 입증한다고 말한다(톨스토이, 2008, pp. 25~26). 얼마 후 톨스토이의 조국에서 발생한 볼셰비키 혁명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처참한 대량폭력의 기원이 되었는지를 떠올린다면, 혁명에 대한 톨스토이의 경고는 예언적이라 할 만하다.

실제로 혁명을 목전에 둔 당시의 러시아는 허무주의자, ана키스트, 사회주의자 등 다양한 혁명주의자들에 의한 테러와 암살이 끊이지 않았다. 톨스토이의 또 다른 논문 “살인하지 말라”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쓰여졌다. 논문은 알렉산드르 2세의 암살로부터 출발한다. 진보적인 개혁정책과, 특히 1861년 농노제를 폐지함으로써 ‘해방자 차르’라 불렸던 알렉산드르 2세는 인민의 의지 당원의 6차례에 걸친 암살 시도 끝에 폭살 당했다. 러시아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이 논문에서 특이한 점은 톨스토이가 황제의 암살을 사회가 그렇게 커다란 충격과 분노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먼저 문제 삼았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살해당한 황제들의 경우, 그가 알렉산드르 2세처럼 가장 온건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 처형당하거나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적어도 수만을 헤아린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율법에 따라 수만, 때로는 수십, 수백만의 살인을 지시한 사람들이 똑같은 율법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서 분노할 권리가 있는가라고 그는 묻는다. 오히려 황제의 살해 사건에 놀랄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자행된 학살에 비해 왕이나 황제의 피살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에 놀라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톨스토이, 2008, pp. 91~92).

물론 그렇다고 톨스토이가 테러리즘을 옹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테러만큼이나 그것이 겨냥하는 국가라는 억압기구에 대한 톨스토이의 분노가 그

만큼 깊다는 뜻이다. 나아가 톨스토이가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이유도 똑같이 폭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테러 행위가 국가만큼이나 부도덕하기 때문임과 더불어, 그것이 국가 타도라는 목표 달성에 있어 지극히 비효율적이라는 데 있다.

“왕이나 황제는 목을 자르면 거기서 새로운 목이 나오는 신화 속의 괴물과도 같아서 그들의 목을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왜 모를까?.. “국왕이 죽었다! 새 국왕 만세!” 그러니 그들을 죽여서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국민의 불행을 가져온 원인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회 질서다...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알렉산드르나 니콜라이나 빌헬름이나 움베르토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낳은 사회 구조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일이다.“ (톨스토이, 2008, pp. 93~97)

테러리즘에 대한 톨스토이의 태도, 즉 국가 철폐라는 목적에는 동의하나, 암살과 테러라는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은 ана키즘에 대한 그의 태도에도 똑같이 표현된다. 사실 톨스토이는 세계 ана키즘의 주요한 사상적 원천이자, 바쿠닌(М. Бакунин), 크로포트킨(П. Кропоткин)과 더불어 러시아 3대 ана키스트로 꼽힌다. 톨스토이는 물론, 세계 3대 ана키스트(프루동, 바쿠닌, 크로포트킨) 중 두 사람이 러시아인이라는 사실은 한번 따로 곱씹어볼만한 주제다.

톨스토이는 1861년 유럽 여행 당시 근대 ана키즘의 창시자 프루동(P. Proudhon)을 브뤼셀에서 직접 만났고, 특히 그의 ‘소유는 절도다’라는 유명한 명제는, 헨리 조지(H. George)의 토지공유론과 더불어, 사적 소유에 대한 톨스토이의 부정적 견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톨스토이는 같은 러시아인이었던 바쿠닌이나 크로포트킨과는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 바쿠닌과 크로포트킨 모두 시베리아에서 유형 생활을 하다 외국으로 망명했기에, 두 번의 유럽 여행을 제외하고 러시아를 떠난 적이 없는 톨스토이와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고, 이론상 큰 차이는 있었지만, ‘국가 부정’이라는 대전제에 있어서는 서로 공명하고 있었다. 톨스토이는 바쿠닌의 시베리아 탈출을 간접적으로 도왔고, 크로포트킨은 톨스토이가 지원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캐나다 이주를

돕기도 했다. 특히 톨스토이는 ‘톨스토이보다 더 톨스토이스럽다’는 평을 들었던 충직한 비서 체르트코프(В. Чертков)를 사이에 두고 크로포트킨과 깊은 지적 교류를 나눴다. 톨스토이가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Взаимная помощь)』, 『빵의 쟁취(Хлеб и воля)』, 『장. 공장. 작업장(Поля, фабрики, мастерские)』 등에 큰 감명을 받은 것처럼, 크로포트킨 역시 상호부조론을 포함해 자기 이론의 많은 부분이 톨스토이에 빚진바 크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또 톨스토이의 사회정치사상은 물론, 『부활』 같은 작품에 깊이 감동해 “레프 톨스토이. 그의 개성과 창작(Лев Толстой: Его личность и творчество)” 같은 글을 쓰기도 했다(심성보, 2008, pp. 12~20; Пирумова, 1995, pp. 145~156; 박홍규, 2013, pp. 124~136).

하지만 톨스토이는 원칙적으로는 아나키즘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아나키스트로, 자신의 사상을 아나키즘으로 지칭한 적은 없었다.

“아나키스트들은 모든 점에서 옳다. 현존하는 체제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도, 현존하는 관습 중 어떤 것도 권력이 휘두르는 폭력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그들은 아나키즘이 혁명으로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심각한 오류에 빠져있다.”(톨스토이, 2008, p. 83)

‘국가 부정’라는 대전제를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가 자신을 아나키스트로부터 확고히 분리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로 대부분의 아나키스트가 반국가와 더불어 반종교, 반신학적 입장을 취한다는 점 때문이다. 모든 권위로부터의 절대적 자유를 주장하는 아나키즘은 많은 경우 무신론과 동의어 관계였다. 톨스토이 역시 기성교회가 국가와 악의 공모관계에 있음을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폭로해왔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기성교회와 새로운 기독교를 명확히 구분해, 국가 철폐의 방법에서부터 그 이후까지를 진실한 기독교 신앙의 실천에서 찾았다. 톨스토이의 아나키즘이 흔히 기독교 아나키즘, 종교적 아나키즘으로 불리는 것은 이에 근거한다. 두 번째 이유는 많은 아나키스트들이 ‘혁명에 의한 국가 타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데 있다. 보통 톨스토이와 구별해, 바쿠닌이나 크로포트킨이 ‘행동적 아나키스트’로 분류되는 것은 이와 관련된다. 실제로 크로포트킨은 톨스토이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톨스토이 사이의 결정적 차이를 혁명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찾았다. 크로포트킨은 톨스토이가 주장해온 사적 소유 철폐 및 토지 공유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체 누가 그걸 해야 하는가? 차르가? 의회가?...그건 오직 혁명만이 할 수 있고, 여기서 나와 톨스토이는 갈라진다.”(Пирумова, 1995) 톨스토이가 이 무력 혁명을 국가만큼이나 부도덕하고 불길하기 짝이 없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국가에 복종해 협력하는 건 물론 안 되고, 의회주의나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국가를 개선하는 것도 안 되고, 무력 혁명으로 국가를 전복하는 것도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국가라는 악을 넘어설 수 있는가. 국가 철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톨스토이는 정부와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폭력이 아니라, 삶으로, 그 도덕적 힘으로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유일하고 영원한 혁명은 오직 ‘도덕적 혁명(нрваственная революция)’뿐이다(톨스토이, 2008, p. 87).

그럼 이 도덕적 혁명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국가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톨스토이는 “우리 시대의 노예제”에서 4가지 행동 원칙을 말한다.

먼저 공직 거부. 즉 일개 경찰에서 국회의원이거나 장관까지, 자의든 타의든 국가 폭력과 관련된 그 어떤 지위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납세 거부. 직접세든 간접세든 정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말고, 세금으로 거둔 돈에서 나온 것이라면 봉급이든 연금이든 포상금이든 그 어떤 돈도 받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공권력 의존 금지. 특히 사유 재산이나 토지 보호, 또는 신변보호를 위해 법이나 공권력 등 국가 폭력에 호소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병역 거부. 이것이야말로 톨스토이가 가장 지속적으로, 열렬히 강조한 원칙이다. 정부는 흔히 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 군대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톨스토이가 보기에 그건 사실이 아니다.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그들의 노동생산물을 강탈하기 위해 군대를 필요로 하며, 다른 민족이 아니라 자신들이 노예화하고 억압한 국민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유지한다. 따라서 병역을 이행하는 것은 국가폭력에 동참하는 것이고, 시민들 자신이 스스로의 압제자가 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톨스토이는 1874년부터 러시아에 도입된 국민개병제를 사회의 모든 근간을 파괴하는 악으로 간주하고, 병역 거부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주장한다(톨스토이, 2008, pp. 162~180).

실제로 톨스토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돕는 일에도 적극 나섰다. 당시 러시아에는 신앙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크고 작은 종교 섹트들이 존재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두호보르(духоборы) 종파다. 아이러니하게도 ‘영혼의 전사(戰士)’라는 뜻을 가진 이 종파는 살인, 전쟁을 엄격히 금지했다. 이 종파는 주로 카프카즈 산맥 부근에 모여 살았는데, 1887년부터 이 지역에도 국민개병제가 적용되면서 1895년 6월 수천 명의 두호보르 교도들이 항의의 표시로 무기를 모아 태우는 시위를 한다. 이 시위 및 병역 거부로 두호보르 교도들은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 톨스토이는 이들의 행동을 적극 지지했고, 비서 체르트코프의 도움 아래 이들의 사정을 러시아 사회는 물론 유럽에 널리 알리기 위해 애썼다. 1895년 10월 톨스토이는 런던 타임스에 글을 기고해, 러시아 정부의 두호보르 탄압을 로마의 기독교인 박해에 빗대어 비판했다, 또 그는 박해당하는 교도들이나 굶어죽을 처지에 놓인 그 가족을 재정적으로 힘껏 도왔다. 당시 러시아는 물론, 유럽 연극무대에서 인기리에 상연되던 그의 희곡 『어둠의 힘』의 공연료가 여기 쓰였다. 또 그는 이들을 돕기 위해 작업이 지연되던 『부활』의 완성을 서두른다. 마침내 톨스토이와 해외 퀘이커들의 노력으로 두호보르의 집단이민이 허가되었는데, 그 이주지로 캐나다가 결정된 데에는 앞서 언급한 아나키스트 크로포트킨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1898년-99년 사이 8천명의 두호보르 교도가 캐나다로 이주할 때, 톨스토이는 『부활』의 원고료로 이주에 필요한 자금 중 1만 7천불을 충당했다.⁴⁾

톨스토이의 헌신적 노력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를 러시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그와 뜻을 같이 해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더욱 많아졌다. 특히 1919년 러시아가 영국과 덴마크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면제법”을 통과시킨 나라가 된 것도 톨스토이의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 불과 7년 만에 폐지되기는 했지만, 이 법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의 비서 체르트코프였기 때문이다(Павлова, 1999).

공직 거부, 납세 거부, 병역 거부 등의 저항이 가능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국가가 자기 생존을 위해 주입한 각종 기만과 사기에서 먼저 벗어나야 한다. 그 대표적인 기만을 톨스토이는 애국심에서 발견한다. 톨스토이의 관련 저술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애국심이나, 평화나?(Патриотизм или мир?)”(1895), “애국심과 정부”(1900)를 들 수 있다. 두 논문 모두 그가 받은 편지들이 집필의 동기가 되었다. 전자는 베네수엘라 국경을 두고 영국과 미국 사이에 벌어

진 전쟁에 대해 견해를 밝혀달라는 영국 기자의 요청에 대해 답장 형식으로 쓴 것이고, 후자는 한 독일 병사가 자신의 참혹한 전쟁 체험담을 전하며 톨스토이에게 부디 전쟁에 반대하는 좋은 책을 써달라고 부탁한데 따른 것이다. 즉, 톨스토이에게 애국심은 곧 전쟁인 것이다.

톨스토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애국심이 인위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유해한 감정이며, 인류가 겪고 있는 병폐의 상당 부분이 애국심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강조해왔다. 그는 애국심을 “자기 국민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желание исключительного блага своему народу)”이라 정의하고(Толстой, 1958a, p. 48). 따라서 그것은 필연적으로 전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톨스토이는 옳고 정당한 애국심이란 없으며, 모든 애국심은 국가라는 악의 필연적 산물이자 그 동력이고, 따라서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애국심을 억누르고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톨스토이, 2008, p.51).

“국가의 거짓가르침은 자신을 어떤 민족, 어떤 국가의 사람들과는 하나이고, 다른 민족, 다른 국가의 사람들과는 분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데 있다. 이 끔찍한 거짓가르침 탓에 사람들은 서로를,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죽이고, 강탈한다. 사람은 자신 속에 있는 삶의 정신적 근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이 거짓가르침에서 자유로워진다. 그 근원을 인정하면 사람은 신이 결합해놓은 것을 갈라놓는 인간의 이 제도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Толстой, 1917, p. 7)

톨스토이는 제국주의의 기본 동력 역시 바로 이 애국심에 있음을 역설하는 한편, 강대국의 침략과 병합으로 고통을 받은 약소국이나 소수민족까지 이 애국심이라는 전염병에 감염되어 자신들을 억압했던 자들의 소행을 똑같이 되풀이한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치 못했다. 자신과 다른 국민이나 민족에 대한 유린과 학살을 정당화하는 애국심과 애국주의는 기독교적 형제애에 가장 대척하는 감정이고 논리다. 톨스토이는 애국심에서 벗어나 사해동포간의 형제애를 회복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는 현재의 모든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은 낡아빠진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복종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켜, 민족 간의 형제애적 결합이라는 보다 고결한 영역에 들어설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역설한다. 오직 그러한 각성을 통해서만 국가와 정부라는 불합리하고 부조

리한 구조는 철폐될 수 있는 것이다(톨스토이, 2008, pp. 58~59, 80).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국가나 조국의 자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따라서 누구의 노예나 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정부라고 불리는 터무니없고, 무엇에도 쓰잘 데기 없고, 치명적인 구시대의 제도와, 여기서 비롯된 고난, 폭력, 굴욕, 범죄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 (톨스토이, 2008, p. 80).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했을 때 톨스토이가 견결한 반전론을 주장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러시아인도, 일본인도 아닌, 고통 받는 모든 사해동포를 위해 그 어떤 전쟁도 결사반대하는 톨스토이의 반전 활동의 이론적 기반이 바로 이 반국가, 탈애국주의에 있는 것이다.

IV. 톨스토이즘의 재해석: 성자와 전사의 결합

과문을 불러온 파격적인 종교관애,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어떤 아나키스트보다 더 아나키스트적인 국가 부정애, 새로운 시대적 운명으로 환호되던 혁명 거부애, 이렇게 신랄하고 무차별적인 애국심 비판까지 더해짐으로써 톨스토이와 주변과의 불화는 절정에 이른다. 현재의 경우 탈국가, 탈민족 담론이 더 이상 낫설지 않을 뿐더러, 국경을 무화시키는 자본, 노동, 정보의 이동으로 그 이론의 확실한 물적 토대가 존재하지만, 당시는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정체성이 오로지 국민국가라는 구획을 토대로 구성되던 시대다. 그런 조건 속에서 탈국가, 탈민족의 원칙은 상상이나 이상으로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당대 러시아 사회, 그리고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톨스토이의 파격은 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톨스토이가 보수 극우세력은 물론, 민족주의자나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모두와 불화했을 뿐 아니라, 당대 국제 평화주의자들에게조차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농민을 제외하고 자신을 둘러싼 거의 모두와 싸워야 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사랑과 용서, 개인의 도덕적 수양과 영적 성숙을 설교하는 성자 톨스토이와, 반교회, 반국가, 탈애국을 외치며 기성 권력과 맹렬히 싸운 전사

(戰士) 톨스토이가 평화라는 이름 아래 이론적, 실천적으로 결합된다.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톨스토이는 ‘예수의 살을 파먹고, 피를 빨아먹고, 돈에 환장한 사제’를 격렬하게 고발하는 톨스토이와 공존하고, 화내지 말며, 원수를 내 몸처럼 아끼라는 사랑의 성자 톨스토이는 ‘왕, 장관, 장군, 판사, 대지주, 상인, 군인, 경찰관은 그저 더 큰 살인자, 강도, 도적들’일 뿐임을 폭로하는 톨스토이와 공존한다. 성경에 기반한 선한 삶을 격려하는 톨스토이는 ‘복음서는 국가도, 교회도 부정’하며, ‘기독교인은 국가가 정한 법에서 자유롭다’고 선동하는 톨스토이와 공존한다(톨스토이, 2013, pp. 213~214; 2004, pp. 136~137; 2004, p. 45 & 110). 츠바이크(2013, p. 153)가 톨스토이에 대한 유명한 전기를 통해 “그의 동포애의 조용한 성서적 설교나 기독교적 겸손으로 채색된 어법, 교리주의 때문에 사회비판의 완전한 반국가행위를 자칫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던 것은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이렇게 평화의 설교자와 평화의 맹렬한 실천가, 성자 톨스토이와 전사 톨스토이가 결합되는 것이다.

톨스토이에게는 선한 삶이 진리인 것처럼 진실한 삶도 진리이며, 둘은 둘이 아니다. 사랑의 법칙에 따르는 선한 삶은 그것을 폭력이 가로막고 있다는 진실을 드러내어 그 폭력과 싸울 때 비로소 온전히 구현될 수 있다. 이 진실을 드러낼 때, 즉 국가라는 억압기구를 고발하고, 자본주의 착취질서를 고발하고, 전쟁의 부조리함을 고발할 때 톨스토이는 누구보다 가혹하고 격렬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중요를 중오하고 전쟁과 전쟁한다’는 말은 일면 옳다. 실제로 그는 “두 전쟁(Две войны)”(1898)이라는 글을 통해 병역을 거부하는 두호보르 교도의 반전운동을 국가의 전쟁에 대항하는 ‘신성한 전쟁’이라 일컬은 바 있다.

하지만 톨스토이에게 있어 그런 사회악, 폭력과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폭력을 쓰지 않는 것뿐이었다. 두호보르 교도가 한 전쟁은 전쟁을 하지 않는 전쟁이었다. 톨스토이가 이 두 번째 전쟁을 ‘새롭고 자기희생적이며 오로지 사랑과 이성에 기반한 전쟁’이라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전쟁은 폭력을 쓰지 않는다고 가해지는 폭력을 참아내고, 어떤 고난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폭력을 감내함으로써 폭력에 가담하지 않는 그런 싸움이고 전쟁이다. 따라서 이 싸움은 결국 누구보다 자신과의 싸움이다. 톨스토이가 국가 철폐의 길을 개개인의 도덕적 자기완성에 두고, 유일한 혁명을 개개인의 도덕적 혁명이라 한

것은 이런 의미다. 톨스토이주의의 핵심이 ‘적극적 무저항’이나 ‘소극적 저항’처럼 형용모순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악에 악으로 저항하지 않지만 악을 절대 용납하지 않기에 ‘적극적 무저항’인 것이고, 폭력에 결연히 저항하나 결코 폭력은 사용하지 않기에 ‘소극적 저항’인 것이다. 그가 원하는 유일한 저항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다. 안함으로써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다. 비폭력과 사랑, 톨스토이주의의 가장 주요한 두 개념은 그렇게 연결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톨스토이의 평화주의 속에서 사랑, 형제애, 무저항 같은 개인의 자기수양적 덕목은 국가 철폐, 착취질서 근절, 전쟁 반대와 같은 사회개혁적 강령과 긴밀하게 결합된다. 물론 이 결합이 늘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건 아니다. 그의 사랑의 언어와 투쟁의 구호가 뿔 수 없이 결합되어 있음을 논리적으로 이해한다 해도, 성자 톨스토이와 전사 톨스토이가 우리 의식 속에서 자꾸 분리되어 곁도는 것도 사실이다. 그의 신랄한 고발과 가차없는 투쟁이 절대적 사랑, 조건 없는 형제애와 양립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개념의 외연을 한껏 넓힐 필요가 있다. ‘러일전쟁을 멈추려면...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식의 조합은 둘 사이가 너무 멀어 듣는 사람을 순간 아득하게 만든다.

또 뿌리 깊은 제도적 폭력이 그저 거기 가담하지 않는 것으로 소멸될 수 있을까. 사회구조의 개혁이 그저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으로 얻어질 수 있을까. 모두 군인이 되는 걸 안하면 전쟁이 사라질까. 물론 원칙적으로는 옳다. 아무도 폭력에 가담하지 않고, 아무도 나쁜 짓을 안 하고, 아무도 군인이 되지 않으면 착취도, 억압도, 전쟁도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모두 그렇게 한꺼번에 안할 수 있을까. 참된 신앙에 의한 개인의 도덕적 각성, 사랑을 만능의 열쇠로 보는 건 매우 근본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이다. 이 이상주의는 한편으로는 그의 사상을 너무 나이브하거나 빈약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실천을 너무 과격하거나 만민과 불화하게 만든다. 이상주의, 또는 그 최대주의로 인해 그는 악의 실행자들과도 비타협적으로 싸웠지만, 동시에 그런 악을 나름의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사람들과도 끊임없이 싸웠다. 그는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토지공유화를 주장하면서도 사회주의자와 협력하기보다는 싸우고, 국가와 모든 권력을 부정하면서도 아나키스트와 싸우고, 평화실현을 지상의 목표로 여기면서도 평화주의자들과도 싸웠다. 그는 평생 어떤 조

직이나 단체에도 속하지 않고 오직 톨스토이로만 살았다. 그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기보다는, 늘 갈등하고 반목하며 문제를 일으켰고, 그래서 늘 고단하고 힘들어했다.

그럼에도 성자 톨스토이와 전사 톨스토이 중 진실은 어느 한 쪽에 있지 않다. 성자와 전사의 모습은 말과 행동, 이론과 실천을 자신의 삶 속에 굳건히 결합시키고자 했던 톨스토이 속에서 공존한다. 두 명의 톨스토이는 때로는 조화하고, 때로는 충돌하며 하나의 톨스토이를 이룬다. 그 실루엣이 매끈하게 다듬어진 모양새라기보다 이런 저런 모순과 균열로 울퉁불퉁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 톨스토이 중 어느 하나를 제외한 톨스토이는 톨스토이가 아니다. 그 모든 반목과 대립, 신랄한 고발과 가차없는 투쟁에의 호소가 조건 없는 사랑, 사해동포의 보편적 형제애, 그리고 평화에 대한 지극한 발원에서 비롯했다는 점은 매우 역설적이다. 성자 톨스토이와 전사 톨스토이의 분리는 이러한 역설의 간극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전사의 뜨거움은 성자의 평화를 향한 열정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톨스토이의 평화 실천이 간디와 같이 폭넓은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위대한 거인의 선구안에 그치고 만 것 또한 이러한 역설의 간극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항상 우리 곁 어딘가에 머물며 문학이 무엇인지, 사랑과 평화가 무엇인지 말해주던 톨스토이에 조금만 더 가까이가게 되면, ‘톨스토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는 못하게 된다. 하지만 두 톨스토이의 모습에 대한 가감 없는 조명과 세밀한 확인을 통해서 우리는 톨스토이의 실체를 보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만 톨스토이를 통한 ‘힐링’ 역시 좀 더 진지하고 무게감 있는 내용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
- 1) 러시아 신문 <노바야 가제타(Новая газета)> 기자의 미카엘 술만 인터뷰에서 인용한 것이다.
 - 2) 톨스토이의 전기적 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러시아 톨스토이 공식사이트인 www.tolstoy.ru의 전기 관련 카테고리(<http://tolstoy.ru/life/biography>), 톨스토이(2005), 윌슨(2010), 라브린(1997), 톨랑(2005), 츠바이크(2013)를 참조했고, 저작 출판과 관련된 정보는 www.tolstoy.ru의 출판안내 카테고리인 “Путеводитель по публикации” (И. Петровицкая)를 참조했다. 앞으로 이 글에서 작가의 전기적 사실과 관련된 서술은 이 문헌들에 기반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 3) 번역에는 ‘위협’이 ‘테러리즘’으로, ‘매수’가 ‘강탈’로, ‘최면’이 ‘세뇌’로 되어있는 등 일부 오역이 있어, 번역을 원문에 따라 일부 수정했다. 원문은 Толстой(1957c, pp. 152~155) 참조. 다른 경우도 필요에 따라 번역을 원문과 대조, 일부 수정하여 인용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 4) 두호보르와 톨스토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러시아 두호보르 공식사이트의 톨스토이 관련 자료, 러시아 톨스토이 공식사이트의 두호보르 관련 자료, 윌슨(2010, pp. 602~604, 620~624, 639)을 참조했다.

References

- 레프 톨스토이 (1974). *종교와 그 진수*. 대톨스토이전집 9. (김학수 역). 서울: 신구문화사. Tolstoy, L.(1974), *Jonggyowa geu jinsu*. Daetolstoyjunjip 9. Trans. by Kim H. S., Seoul: Shingumunwhasa.
- 레프 톨스토이 (2004). *사랑의 법칙과 폭력의 법칙*. (오만규 역). 서울: 아웃사이더. Tolstoy, L.(2004), *Sarangeu bupchikgwa Pokryukeu bupchik*. Trans. by O M. K., Seoul: Outsider.
- 레프 톨스토이 (2005). *톨스토이의 비밀일기*. (이항재 역). 서울: 인디북, Tolstoy, L.(2005), *Tolstoyeu Bimililgy*. Trans. by Lee H. J., Seoul: Indibook.
- 레프 톨스토이 (2008). *살인하지 말라. 국가는 폭력이다*. (조윤정 역). 서울: 달팽이. Tolstoy, L.(2008), *Salinhajimalla. Gukganeun Pokryukida*. Trans. by Cho Y. J., Seoul: Dalpaengi.
- 레프 톨스토이 (2008). *아나키즘에 대하여. 국가는 폭력이다*. (조윤정 역). 서울: 달팽이. Tolstoy, L.(2008), *Anarchisme daehayeu. Gukganeun Pokryukida*. Trans. by Cho Y. J., Seoul: Dalpaengi.
- 레프 톨스토이 (2008). *애국심과 정부. 국가는 폭력이다*. (조윤정 역). 서울: 달팽이. Tolstoy, L.(2008), *Aeguksingwa Jungbu. Gukganeun Pokryukida*. Trans. by Cho Y. J., Seoul: Dalpaengi.
- 레프 톨스토이 (2008). *우리 시대의 노예제. 국가는 폭력이다*. (조윤정 역). 서울: 달팽이. Tolstoy, L.(2008), *Uri sidaeeu noyeje. Gukganeun Pokryukida*. Trans. by Cho Y. J., Seoul: Dalpaengi.
- 레프 톨스토이 (2008).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국가는 폭력이다*. (조윤정 역). 서울: 달팽이. Tolstoy, L.(2008), *Haneunimeu naraneun nihi gaundee issda. Gukganeun Pokryukida*. Trans. by Cho Y. J., Seoul: Dalpaengi.
- 레프 톨스토이 (2012). *참회록*. (이영범 역).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Tolstoy, L.(2012), *Chamhoirot*. Trans. by Lee Y. B., Seoul: Jisikeulmandeuneunjisik.
- 레프 톨스토이 (2013). *부활*. (백승무 역). 서울: 문학동네. Tolstoy, L.(2013),

- Buwhal*. Trans. by Baek S. M., Seoul: Munhakdongne.
- 라브린, J. (1997). *톨스토이*, (이영 역), 서울: 한길사. Lavrin, J.(1997), *Tolstoy*. Trans. by Lee Y., Seoul: Hangilsa
- 롤랑, 로맹. (2005). *톨스토이 평전*, (김영아 역), 서울: 거송미디어, Rolland, R.(2005). *Tolstoy pyungjun*. Trans. by Kim Y. A., Seoul: Geusongmedia.
- 박홍규 (2013). *아나키즘 이야기*. 서울: 이학사. Park, H. G.(2013). *Anarchism iyagi*. Seoul: Ihaksa.
- 심성보 (2008). 레프 톨스토이와 아나키즘,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28, 9-34. Shim, S. B.(2008). Lev Tolstoywa anarchism. *Russiaeumunhakyeyunonjip*, 28, 9-34.
- 윌슨, A. N. (2010). *톨스토이: 삶의 숭고한 의미를 향해 가는 구도자*, (이상룡 역), 서울: 책세상. Wilson, A. N.(2010), *Tolstoy: Salmeu sunggohan eumireul hyanghae ganeun gudoja*. Trans. by Lee S. Y., Seoul: Chaeksesang.
- 이문영 편 (2015), *폭력이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Lee, M. Y.(2015), *Pokryukiran mueussinga*. Seoul: Acanet.
- 츠바이크, S. (2013). *톨스토이를 쓰다*. (원당희 역). 서울: 세창미디어. Zweig, S.(2013), *Tolstoyreul sseuda*. Trans. by Won D. H., Seoul: Sechangmedia.
- Викторов, И. (2006). Русские против русских в борьбе за Нобеля. *Новая газета*, 5 октября, Retrieved from http://www.ng.ru/world/2006-10-05/8_russians.html. Viktorov, I.(2006), Russkije protiv pusskikh v bor'be za Nobelja. *Novaja gazeta*, 5 oktjabrja.
- Джалагония, В. (2007). Нобелевская премия. *Триумфы, мифы, драмы. Эхо планеты*, № 33. Dzhalagonija, V.(2007), Nobelevskaja premija. *Triumfy, mify, dramy. Ekho planety*, No. 33.
- Кожурин, А. Я. и Л. И. Кучина. (2010). *Религиозно-философское учение Л. Н. Толстого: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жизнестроительства. Проблемы языкознания и теории коммуникации*, ГРНТИ. Kozhurin, A. J. i L. I. Kuchina(2010), *Religiozno-filosofskoje uchenije L. N. Tolstogo: teorija i praktika zhiznestroitel'stva. Problemy jazykoznanija i teorii kommunikatsii*. GRNTI.

- Мережковский, Д. (2000). *Лев Толстой и Достоевский*. М.: Наука, Retrieved from http://az.lib.ru/m/merezhkovskij_d_s/text_1902_tolstoy_i_dostoevsky.shtml. Merezhkovskij, D.(2000), *Lev Tolstoy i Dostoevskij*. М.: Nauka.
- Можегов, В. (2000), Второе отлучение Льва Толстого.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17 ноября. Retrieved from https://archive.is/20131129115600/ng.ru/history/2010-11-17/7_tolstoy.html. Mozhegov, V.(2000), Vtoroje otlucheniye L'va Tolstogo. *Nezavisimaja Gazeta*, 17 Nojabrja.
- Павлова, Т. А. (1999). Исторические судьбы российского пацифизма.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8. Pavlova, T. A.(1999), Istoricheskije sud'by rossijskogo patsifisma. *Voprosy istorii*, 8.
- Пирумова, М. (1995), Петр Кропоткин и Лев Толстой. Труд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15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П. Кропоткина, Вып. 1. М. Retrieved from <http://www.doneckforum.com/forum208/thread39230.html>. Pirumova, M.(1995), Petr Kropotkin i Lev Tolstoy. Trudy mezhdunarodnoj nauchnoj konferentsii posvjatschennoj 150-letiju so dnja rozhdenija P. Kropotkina. Vyp. 1. М.
- Синод. (1901). Определение святейшего синод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е ведомости. № 54, 25 февраля (10 марта). Материал из Википедии Определение Святейшего Синода о графе Льве Толстого. Sinod (1901), Opredeleniye svjatejshego sinoda. Sankt-Peterburgskije vedomosti, No. 54, 25 fevralja (10 marta). Material iz Wikipedii Opredeleniye svjateishego Sinoda o grafe L've Tolstogo.
- Стрельцов, М. (2011) Почему Толстой не получил Нобелевскую? *Livejournal*, 22 June. Retrieved from <http://steclinski.livejournal.com/114660.html>. Strel'tsov, M.(2011), Pochemu Tolstoy ne poluchil Nobelevskuju? *Livejournal*, 22 June.
- Толстой, Л., (1917). *Суеверие государства*. М.: REV-Верстка. Tolstoy, L.(1917), *Sueverije gosudarstva*. М.: REV-Verstka.
- Толстой, Л., (1928-1958),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90 томах*. М.: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Tolstoy, L.(1928-1958), *Polnoje sobranije sochinenije v 90 tomakh*. М.: Hudozhestvennaja literatura.

- Толстой, Л., (1934), *Письмо Л. Толстого В. М. Грибовскому, 10-11 июня 1885.* Т. 63. Tolstoy, L.(1934), *Pis'mo L. Tolstogo V. M. Gribovskomu. 10-11 ijunja 1885.* Т. 63.
- Толстой, Л., (1937), *Дневник 1855.* Т. 47. Tolstoy, L.(1937), *Dnevnik 1855.* Т. 47.
- Толстой, Л., (1950) *Что такое религия и в чем сущность ее.* Т. 35. Tolstoy, L.(1950), *Chto takoje religija i v chem sutschnost' eje.* Т. 35.
- Толстой, Л., (1952a), *Не убий.* Т. 34. Tolstoy, L.(1952a), *Ne ubij.* Т. 34.
- Толстой, Л., (1952b), *Ответ на определение Синода от 20—22 февраля и на полученные мною по этому случаю письма.* Т. 34. Tolstoy, L.(1952b), *Otvet na opredelenije Sinoda ot 20-22 fevralja i na poluchennye mnouju po etomu sluchaju pis'ma.* Т. 34.
- Толстой, Л., (1952c), *Рабство нашего времени.* Т. 34. Tolstoy, L.(1952c), *Rabstvo hashego vremeni.* Т. 34.
- Толстой, Л., (1956), *Закон насилия и закон любви.* Т. 37. Tolstoy, L.(1956), *Zakon nasilija i zakon ljubvi.* Т. 37.
- Толстой, Л., (1957a) *В чем моя вера?* Т. 23. Tolstoy, L.(1957a), *V chem moja vera?* Т. 23.
- Толстой, Л., (1957b). *Исповедь.* Т. 23. Tolstoy, L.(1957b), *Ispoved'.* Т. 23.
- Толстой, Л., (1957c), *Царство божие внутри вас.* Т. 28. Tolstoy, L.(1957c), *Tsarstvo bozhije vnutri vas.* Т. 28.
- Толстой, Л., (1958a), *Патриотизм или мир?* Т. 90. Tolstoy, L.(1958a), *Patriotism ili mir?.* Т. 90.
- Толстой, Л., (1958b), *Патриотизм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Т. 90. Tolstoy, L.(1958b), *Patriotism i pravitel'stvo.* Т. 90.
- Фирсов, С. (2001). Горький юбилей.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Религии, 14 марта. Retrieved from http://www.ng.ru/ng_religii/2001-03-14/8_tolstoi.html. Firsov, S.(2001), Gor'kij yubilej. Nezavisimaja gazeta-religija, 14 marta.

인터넷 사이트

www.tolstoy.ru (두호보르 관련자료: http://tolstoy.ru/events/1437/?sphrase_id=9414)

www.duhobor.ru (톨스토이 관련자료: <http://duhobor.ru/tolstoi.html>)

E-mail: peacemoon@snu.ac.kr

논문심사일정

투고일자 : 2016. 2.15.

심사일자 : 2016. 2.25. - 2016. 3.14.

게재확정일자 : 2016. 3.25.

